

야, '무공천' 전방위 압박

4월 임시국회 쟁점화…박대통령·새누리에 파상공세

김·안, 이틀째 서명운동…최고위원은 연좌농성 돌입

세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1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이는 6·4 지방선거 전 기초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대여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또 그동안 신당 창당에 집중하느라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제기하지 못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세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거리로 나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신경민·양승조·우원식 최고위원은 서울광장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서울 여의도역 앞에서 열린 서명운동 인사말을 통해 “제1야당 대표가 만나기를 제안했는데 이 조차 외면하고 있

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에게 ‘불통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회담 제안 수용을 촉구했다.

안 대표도 “기초선거 폐해에 대해서는 최근 청와대 비서관이 직접 후보들을 면접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누구나 알게 됐다”면서 “신뢰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합당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약속과기! 후안무치! 적반하장! 국민무시!” 박근혜 정권은 지금 한국 정치사에서 나타난 구태정치의 모든 것을 다 재현해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 등 공식 석상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 관찰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의총에서 설운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

령이 단식투쟁을 했던 것처럼 지도부가 직

접 사족생의 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고, 강창일 의원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자”고 건의했다.

광화문 1인 시위에 나선 원혜영 의원은 “서울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당 지도부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무공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이종석에서도 상당수 의원들이 무공천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내 여론수렴을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보였다.

정청래 의원은 “남북이 군대를 줄이자고 함께 약속했는데 북한이 약속을 깨고 군대를 증강하면 우리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군대를 해산하고 물살당할 것인가”라며 “대선 당시 약속은 무공천이 아니라 기초공천제 폐지이며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도 “새로운 당론을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영민 의원은 “입법을 통한 정당공천제 폐지와 무공천은 본질적으로 같지는 않다.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부터 임시국회…지방선거 ‘전초전’ 예고

북한인권법·원자력방호방재법 등 쟁점사항 수두룩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첫날 합의 불발…재논의 키로

임시국회가 1일부터 막이 오르지만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방송법, 원자력 방호방재법 등 쟁점사항이 수두룩해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지도부 협의에 따라 애초 3월 임시국회로 소집된 회기가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열린 뒤 폐회하고, 끝바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회인 만큼 여야간 주도권 다툼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 세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9인 협의체 회의를 재개했다는 기준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합의를 하지 못한 것도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하게 했

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 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정은 1일 각자 수정된 안을 가져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종·인종범 의원, 세정치민주연합 이목희·김용미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실무회의 재개 첫날부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

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반면 세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진전된 안을 모색하겠다 했으나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데 장관이 아무 안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의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 문제를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말라”며 연금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겠다는 유혹을 여야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정치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에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4월 내에 절충의 여지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리코엔(N) 골드

식후 혈당상승 억제!!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1899-3975 H.P 010-3598-7080

NAVER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6·4 지방선거 현장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

이낙연 “광양~여수 해저터널 적극 지원”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은 31일 “광양제철~여수간 단부 생가스 교환을 위한 해저터널 구축사업의 완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비싼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와 철강업계 모두에게 원인이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돋겠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식품소재산업 전남 주력산업 육성”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31일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식품소재산업’을 전남 농업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주요 현안 간담회에서 “1차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차 산업으로 불리는 농식품 가공산업의 활성화가 농도 전남에 절실히 현안이다”고 말했다.



정희곤,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정희곤 광주시의원이 31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교육의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이 행복하고, 교직원들이 보람을 찾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장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지낸 정 예비후보는 ‘교육수도, 실력광주’를 표방하고 있다.

기초단체장·지방의원

조호권 “31사단 이전은 시민 숙원…환경”

광주 북구청장 출마예정자인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장은 31일 광주시의 ‘31사단 이전’ 본격 추진에 대한 환경과 함께 “광주시장 후보들이 이전에 대한 구체적 철사진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31사단 이전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체계적인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문 “서구 작은 도서관 활성화해야”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이춘문 광주시의원은 31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신간 도서 구입 예산과 운영 인력 확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용 주민들로부터 “관리 인력의 배치가 적절치 못해 개방시간이 불규칙하고, 신간 도서가 부족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편사항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서종진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

서종진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31일 지역 간담회를 열고 “주민자치센터의 역량강화와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선호, 광주시의원 출마 선언

김선호 광주시 교육위원회는 31일 광주시의원(서구 1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광주시민의 인간다운 삶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 현재 성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전/대지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포함) 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 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14,215㎡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 지역 매매 7억

◦ 나주시 다시면 전 152,000㎡ 임야 86,000㎡ 대지, 주택포함 매매 32억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5천만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배 과수원 2,975㎡(대지포함)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지역, 매 1억 4천만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1억7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티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드림피아개발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